
평국전 칼럼

(교3/14)전문

2016 평국전 칼럼2 제시문 분석 기본 <비문학>

은 필국 어논스

수능 국어를 정복할 논리/논술 실력을 위한 완벽한 관리

경기도

승인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 a	㉣ b
②	㉢ a	㉣ c
③	㉢ b	㉣ a
④	㉢ c	㉣ a
⑤	㉢ c	㉣ b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①	a	b
②	a	c
③	b	a
④	c	a
⑤	c	b

<비문학 분석>

적용사례: <2014학년도 기출 B형 19~21번>

1. 제시문 분석

<핵심어 분석>

%%각 번호는 문단 순서

① 심신이원론의 개념

독해시 생각>

심신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이네. 이원론 설명방식들이 이후에 나오려나?

대상: 심신이원론

중심화제: 심신이원론의 개념

핵심어: 심신이원론의 설명을 위한 **다양한 시도**

② 상호작용론의 개념과 한계

독해시 생각>

상호작용론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군. 위에서 다양한 시도라고 했는데, 이후에 다른 이론들이 단락별로 나올까? 그러고 아래로 단락별 스캔을 하니 ③에서는 평행론이 나왔네. ④에서는 부수현상론이 나왔네. ⑤에서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네. 자 이제 병렬적으로 심신이원론의 다양한 시도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뭔가 결론을 내리려나 보군. 아님 말고, 상호작용론부터 표시하면서 읽어야 겠군.

음. 상호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쪽이군. 서로 영향준다는 부분이 중요하군.

대상: 상호작용론

중심화제: 상호작용론의 개념과 한계

핵심어: 상호작용론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한계가 있구나.

팁) 상호작용론은 서로 연결되어 인과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을 받아서 이해가 되는 경우에도 문제부터 먼저 본 학생의 경우 세부 항목에 대한 발문이 있다는 것을 알면 독해 시에 이를 기억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한다. 그렇게 머리에 넣으려는 미세한 노력이 생각 속에 지나가게 된 후 아래에 나온 평행론을 읽으면 더 큰 부담감이 내머리를 지나가게 된다. '평행론의 내용까지 내가 머리에 넣을 수 있을까?/이후에 기억 아나면 어찌지/ 그러다 다시 시간이 부족하면 어찌지?' 또한 평행론을 읽다가 상호작용론과 구분이 정확히 되는 지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상호작용론으로 올라와 일시적으로 보는 학생도 있는데, 이는 좋지 못한 방법이다. 어차피 상호작용론이란 이름에서 나오는 힌트를 제외하고는 머리 속에 크게 남는 것이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표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시험공부하듯 자동암기하고,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자신의 욕심에 찬 자동작용을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자동작용에 얽매이면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매우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힘든 한계상황으로 몰고가게 된다. 첫문단에 나왔듯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적 학생이라면 보자마자 문제로 그 셋을 구분해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③ 평행론의 개념과 한계

독해시 생각>

평행론은 뭐가 평행하다는 건가. 둘이 큰 관련성 없이 각자 제 길로 간다는 거 같군. 표시할 것만 표시해 두어야겠군.

대상: 평행론

중심화제: 평행론의 개념과 한계

핵심어: 육체적 사건대로,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관계 성립

④ 부수현상론의 개념과 한계

독해시 생각> 둘 중 하나는 부수적이라는 이야기네. 그리고 보니 심신이원론이 병렬로 가서 병렬의 마지막 부분이라 단독 문제 구성될 수도 있겠네.(차후설명) 그리고 보니 세 번째 문제가 부수현상론이네.

대상: 부수현상론

중심화제: 부수현상론의 개념과 한계

핵심어: 정신적 사건은 부수적 현상일 뿐 영향을 미치지 못함

⑤ 심신일원론의 등장

독해시 생각>

어? 열심히 설명하고, 이런 방법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결론은 뭐야 심신이 일원론이라는 것임? 그럼 심신일원론이 심신이원론을 이긴 **주조연형**(형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심신일원론이 사실은 주연이고, 심신이원론은 조연으로 주연의 등장에 깔리는 것//이후에 칼럼달리 정리)으로 **주연인 일원론의 특징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썼군.**

대상: 심신일원론

화제: 심신일원론의 등장과 그 배경

핵심어: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함

<전체:핵심어분석>

대상과 중심화제: 심신이원론의 한계와 동일론의 등장

~심신이원론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한계점과 심신일원론의 등장

<구조분석>

글의 구조는 필자가 글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자하는 핵심어를 잘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서술의 방식입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은 필자의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험생들의 머리 속에 필요한 내용만이 남게 됩니다. 평가원 제시문의 구조는 크게 주조연형과 병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조연형은 개념확장형과 안긴 병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칼럼을 달리하여 자세히 사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글의 기본적인 구조도는 기출분석서의 기본 해설에 나와 있는 기본적 글의 구조도를 참고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독해시 생각>

심신이원론과 심신일원론을 비교했는데, 결국 일원론이라는 이야기군 왜냐면 육체적 사건으로 하나니까.

.글의 구조는 주조연형(글의 구조에 대한 내용은 칼럼회차 등을 따로 빼서 정리)으로 **주연은 동일론 조연은 이원론**이네. 조연 비중이 큰 지문인데 **조연이 병렬형**으로 들어가서 주연에게 안겨있네. 만약 세 개의 문제를 낸다면.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병렬형 끝단의 추론문제를 내겠군.**

정리하면 핵심어를 분석해서 핵심문장을 작성할 때 필자가 내고자 했던 효과(구조)를 반영하여 결론을 낸다. 즉 글의 구조가 드러난 주제문을 만들어 낸다. 이를 이후에서부터 킬문장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핵심어 분석과 글의 구조분석을 통해 우리는 킬문장을 만들 수 있다.

K(킬문장)=K문장=K`로 언급

심신이원론은 심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육체적사건과 정신적사건은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심신일원론(동일론)이 제기된다.

2. 발문&선택지 분석

발문 분석`은 `K문장`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반영되는 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원에서 내는 비문학 독해의 경우, 제시문을 읽고 머리 속에 남는 내용과 문제에서 구성된 답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머리 속에 글을 읽고도 남지 않는 부분은 **네이밍**을 통해 문제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문분석은 단순한 문제유형분석이 아니라 **제시문 독해시 문제를 예측하는 논리를 찾아내어 구조독해의 당위성을 더해주는 귀납적 작업**입니다. 당연히 기출의 유형은 정리해야 하지만, 변별력은 신유형에서 나타납니다. 제대로 된 발문분석을 통해 본질은 같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발문 분석의 핵심입니다.

선택지 분석은 우리가 `킬문장`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킬문장으로 정답인지 오답인지 구분이 어려웠던 첫 번째 문항의 ①~④과 같은 선택지들을 어떻게 대처할 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문항 중에 그런 경우는 역대 20년 수능 중 딱 1문제(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오류

라고 생각합니다만) 선택지 적용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또한 모의고사여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는 내가 분석해야할 선택지를 15문항*5개=75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15문항*1개~2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문제풀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올리기 위한 복안을 만드는 것이니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발문 분석과 선택지분석 적용>

1번 문항 <정답률 70% 매력적 오답 ③>

<주연을 답으로 한 문제>

심신일원론과 심신이원론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낸 것입니다. 만약 글의 구조가 심신이원론의 다양한 시도로 끝나고 마지막 문단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K문장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선택지들은 정오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글의 세부항목을 묻는 경우에도 이러한 지문의 구조에서 평행론이나 상호작용론의 단락에서 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비록 선택지를 구성할 지라도 답은 주연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① 맞는 거 같네.

② 그런가?

③ 그런가?

④ 그런가?

⑤ 머야.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은 없고 육체적 사건만 있다는 뜻인데. 두 가지 상식이 성립한다는 게 먼소리야. 이놈이 답이네.

팁) 1번 문제는 정답률이 70%로 등급을 구분 짓는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정답률이 50%이하의 문제는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교우위를 만들어 주는 문제라 이해하면 됩니다.

꽤 많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선택지가 ⑤번이 답이기 때문에 문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①~④번까지의 선택지가 심신이원론에 대한 선택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⑤번 선택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합니다. 모든 문제의 일치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글은 주조연형으로 단순병렬형으로 끝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글의 중심에 서 있는 핵심어에서 답을 구성함을 이해해야합니다.** 만약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⑤번 선택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야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⑤선택지의 정오 구분이 모호하더라도 찍어도 ⑤번을 찍어야합니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

1번 문제를 풀면서 이전의 팁)에서처럼 주연과 관련된 답에 대한 구분만 하여 수능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①~④번 선택지를 제시문에서 찾고 그 정오를 구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⑤번 선택지가 ①선택지에 있었다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학생들은 나머지 선택지의 정오구분을 합니다. 답답한 부분입니다. **만약 ①~⑤를 보고도 전혀 정오구분을 못하는 경우라면 절대독해와 핵심어 찾는 절대연습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선택지 말고 답인 선택지만 정오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글의 구조가 파악되면 정오구분 조차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2번 문항<정답률 75%>

<주연을 답으로 포함한 공통점을 묻는 문제>

평행론과 동일론 모두 동의 한다니까. 공통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심신일원론과 이원론이 병렬의 형태(병렬형의 차이는 다른 지문 해설을 통해)의 구조가 **아니므로 일원론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A \cap B) \subset A$ 라는 기준을 이용해 둘의 공통점이라면 일단 A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병렬형의 글의 구조에서 공통점이라면 공통전제를 찾아야 하지만(예를 들어 부수현상론과 상호작용론의 공통점: 심신이 분리되면서 연관 되었다는 두가지 상식) **이 경우에는 주연을 기준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심신일원론의 기본가정에 만족되는 선택지를 우선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지를 줄이니 답은 ③이며, 확인해보니 평행론에서 중요하게 표시(강의와 다른 칼럼을 통해)한 부분에서 문장을 유사하게 가져왔습니다.

- ① 정신적 사건 이야기 땡
- ② 애도 정신적 사건 때문에 땡
- ③ 일단 정신적 사건 이야기는 없는데, 평행론 부분 보니까. <즉>부분 동그라미 친 문장 내용이네 이놈이 답일 가능성이 가장 크군.
- ④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땡
- ⑤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네 땡.

3번 문항<정답률 75%>

<조연을 묻는 문제>

이 제시문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심신이원론`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구분한 심신이 `신`(육체적 사건) 쪽으로 하나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문 비중으로 보면 심신이원론이 많지만, 결론은 아주 짧게 동일론으로 내리고 있어 좀 허무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연에 해당하는 심신이원론의 부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수현상론`을 문제화 하여 조연을 통해 짧은 지문에 대한 심도있는 독해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풀이과정에서 생각>부수현상론 네이밍 문제로 `부수현상론`에 나타난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을 구분해야겠군.

제시문을 보니. **<하지만>의 문장이 나타나 있음 이 부분이 답이네.** 즉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의 구분은 정신적사건은 어떤 사건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핵심이네.

(보기)를 보니 <반면> 부분에 ㉢달의 모양은 어떤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정신적 사건은 ㉢달의 모양이군.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와 인과적 역할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매우 쉬운 거네. 답은 2번 뿐이네.

평국전 용어정리) 네이밍

수능에서는 네이밍(제가 칭하는 용어임)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다가 네이밍 부분은 그 의미문장이나 단락 정도를 읽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라는 문제 풀이솔루션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묻는 항목으로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밍은 보통 밑줄, 사각형박스, 굵은 문체, ㉠, ㉡, <제 1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문학과 문학 문제는 제시문을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가원의 문제를 보면 네이밍 작업을 따라가면 답을 찾아내는 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셋트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적 힌트가 깔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